

## 편집의 변

김우진

(동양음악연구소 소장)

1940년대 초반부터 고악보 연구는 초기 한국음악 연구의 중심에 있었고, 한국음악사를 기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나 초기 고악보 연구시에는 발굴과 해제가 병행되는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각 악보들이 어떤 역사적 배경 속에 만들어졌고, 그것들 간의 관계는 무엇이며, 심지어 악보들 속에 실려 있는 몇몇 악곡들의 음악 계통이나 정체에 대해 서술할 수 없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학들의 뜨거운 열정과 끈질긴 집념으로 1970년대 중반 무렵부터 초기 고악보 연구는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각 고악보에 실려 있는 여러 악곡들은 낱알으로 떨어진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계통적으로 발달했음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고악보 연구를 진척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연구 성과가 축적되면서 연구의 세부 주제 역시 그 심도가 깊어지고 확장되었습니다. 그 결과 1980년대 전후로 고악보의 연구는 다음 단계로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국내외에서 다수의 고악보 연구논문들이 발표되면서 악보에 실린 개별 악곡 외에 ‘기보’가 문제시 되었고, 또 동일한 악보 및 악곡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이 충돌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1990년대 이후 고악보 연구를 더욱 성숙하게 했습니다. 실제로 1990년대에는 그간의 고악보 해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단계에 이르렀음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고악보 연구를 통해 탈-고악보 연구의 문제들 예를들면, 한국음악의 장단, 연주, 악곡 등에 대한 기존의 연구 결과에 대해 비평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연구가 진척되면서 2000년대 이후로는 고악보의 역사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음악기록에 대한 보다 본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동양음악연구소는 지난 2010년에 “시공간을 공간에 담다: 국악

채보와 기보”라는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한 바 있었고 그 결과를 『동양음악』 제32집에 수록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는 비록 고악보를 다루지는 않았지만 당대의 음악 기록의 주체들 혹은 채보의 주체들이 무엇을, 어떻게, 왜 다루었고, 또한 그것을 누가 어떻게 해석하는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간 고악보가 다루어진 방식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고악보의 정체를 더욱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고악보를 역사 연구의 대상으로 한정짓지 않고 ‘음악의 기록’으로 이해하고, 시각적 기록물로서가 아니라 ‘음악적 실천의 대상’물로 접근해보기 위해서는 무엇이 고려되어야 하는지 질문해보게 되었습니다. 본 호는 이상과 같은 배경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호의 편집에 앞서 지난 9월 동양음악연구소에서는 “동양음악의 기보법과 해석”이라는 주제로 학술회의를 연 바 있습니다. 학술회의에서는 다음 두 가지 점을 검토해보았습니다. 기보가 시각에 의존하는 한 시각기록의 문제는 별도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한국, 중국 그리고 인도의 음악기록을 동계에 놓고 동양의 음악문화 속에서 기보와 그 해석의 문제를 검토해보았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의 고악보, 즉 한국의 음악기록물을 시각적 산물로만 두지 않고, 이에 대한 청각적 해석을 시도하며 또 이로부터 발생하는 논의점들을 점검해 본 바 있었습니다. 그 결과를 대부분 본 호에 싣게 되었습니다. 다만, 본 호에 실린 대부분의 글들이 지난 학술회의에서 발표된 것이었지만, 토론을 거치면서 이상의 문제들을 총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보완 편집하였습니다. 당일 거론된 여러 문제들을 재론하는 과정에서 인도음악에 대한 발제문은 본 호에는 실리지 못했지만, 당시 논의 중에 청각적 해석에 대한 보완은 본 호에서 별도의 논문으로 추가되었습니다.

본 연구소의 특집 논문들은 향후 고악보를 연구하려는 학자와 재현하려는 연주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며, 일반논문 「근대기 상업민요와 대중음악」은 한국의 대중음악사(또는 민요사)의 기술에 있어서 단절되었던 노래사의 국면들을 연속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 이론적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귀중한 원고를 보내주신 기고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고, 더불어 이 글들이 여러 연구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